

改編 서두르는 日本石油業界

「脱石油」에 효과적으로 対応위해

〈油協·弘報室〉

日本石油業界는 최근 석유위기에 따른 「脱石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석유업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다나카通産相이 현재 36개社에 이르는 日本석유회사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省에너지의 급속한 진전, 代替에너지의 도입과 景氣 후퇴에 따른 석유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日本은 전반적인 경제는 일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석유수요의 감퇴, 특히 생산비율이 높은 重油의 공급 과잉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日本석유업계는 현재 석유정제, 元売, 販売의 36개社외에 商社, 석유개발, 액화석유가스(LPG)수입, 판매회사와 연간 약 6천억円의 이자를 석유회사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금융계, 연간 소비 1차에너지 3억 6천만톤(석유환산)의 90%를 운반하는 해운을 포함하여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핵심부문인 석유정제와 元売부분이 脱石油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적자기업이 늘어나는 취약한 체질을 드러 내기 시작함으로써 에너지 安定供給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석유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①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퇴(80년 실질적으로 前年比 9% 감소), ② 특히 석탄, 가스, 原子力과의 價格代替性이 높은 주력상품인 벵커C油(原油로부터의 取率 35%)의 수요감퇴와 가격 하락, ③ 수입원유의 重質化, ④ 수입원유가격의 多元化와 이에 따른 석유회사간의 원유수입 코스트의 격차확대, ⑤ OPEC(석유수출국기구)

의 가격 결정력의 영향을 받는 자원(석유, 가스 등)과 非OPEC자원(석탄, 우라늄)과의 가격차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日本뿐만 아니라 국제 석유산업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日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석유자본간의 경영격차의 확대이다. OPEC의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다량의 석유와 가스資源을 확보한 그룹은 판매와 收益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또 OPEC의 원유수출의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값싼 原油(다른 OPEC원유보다 10%정도 저렴)를 비교적 다량 구입하는 원유구입루트를 가진 그룹은 석유수요감퇴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脱石油에의 과정은 세계적인 석유자본 그룹간의 力学관계가 재편성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와 직결되어 있는 칼텍스, 엑슨, 모빌, 걸프 등 美国系 메이저의 우위성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英国, 프랑스, 네덜란드系 등 사우디와의 관계가 얇은 그룹은 그만큼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자원을 갖지 못한 日本석유업계의 지위의 상대적 저하와 美国系, 非美国系 및 民族系의 석유회사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美国系 메이저의 우위는 레이저정권에 의한 국산석유가격통제철폐등 메이저주導型의 에너지정책의 전개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아랍코스의 外資A社와 民族系 A社의 결산내용을 보더라도 이와같은 세계적인 석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알 수가 있다. 外資系 A社의 사우디 輕質原油의 정제비용은 약44

%, 民族系A社의 그것은 약 5%이다. 사우디 輕質原油는 기타 中東輕質原油에 비해 수입가격이 배럴(1백59ℓ)당 3.4달러 정도 싸다. 그것은 Kℓ당 4천円 안팎의 원유코스트의 격차를 가져 온다. 현재 日本석유업계의 평균 수입원유 가격(통관기준)은 Kℓ당 약 4만7천円으로 이 4천円의 가격차는 큰 것이다. 이러한 原油코스트의 격차가 연간 外資系A社가 民族系A社의 60배의 영업이익을 가져온 요인이 되고 있다.

日本석유산업에 있어서 外資系와 民族系の 경쟁격차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최근의 환경변화 과정에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日本정부는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원유의 물량 확보에 석유정책의 力点を 두었으며 메이저의 원유확보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外資系와 民族系를 구별하지 않는 정책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日本석유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구조변화는 이러한 정책운영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석유뿐만 아니라 廣義의 에너지 안정공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업체질이 약화된 民族系 석유산업의 재건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日本석유업계의 체질개선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최대의 경영격차 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는 원유확보 능력의 강화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량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값비싼 스파트原油를 가급적 줄이고, 산유국이 공식판매가격에 덧붙여 받는 프리미엄(割増金)의 최소화하는 質的인 개선도 아울러 모색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이 팽박해지면 산유국들은 으레히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日本의 원유수입가격에는 현재 배럴당 평균 1달러50센트 안팎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석유업계가 산유국의 프리미엄등 갖가지 요구에 약한 것은 실적확보에 대한 불안심리와 日本석유회사간의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사우디 아라비아나 멕시코産 원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原油의 重質化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유多消費산업들이 다투어 석유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重油의 생산비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重質油의 집중정제와 重油의 中間留分(등유·경유)에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

日本石油会社の 資本提携狀況

会社名	資本金		시장점유율 (79年度)(%)		出資比率 (%)
	金額 (百万円)	比率 (%)	精製	販売	
共同石油	18,000	5.6	-	12.9	日本鉱業40.8%, 아시아石油27.2%, 富士石油22.5%, 鹿島石油7.6%
日本鉱業	24,600	7.7	4.2	0.1	日本興業銀行4.8%, 三井銀行3.8%, 朝日生命3.2%, 丸紅2.5%, 三井物産3.0%
知多石油(東亜共石)	6,000	1.9	1.7	0.1	日本鉱業61.7%, 共同石油33.3%, 伊藤忠商事5.0%
아시아石油	7,507	2.4	2.1	0.0	三菱化成工業48.7%, 三菱商事12.0%, 三井物産10.0%, 共石7.0%
아시아共石	9,600	3.0	2.5	-	아시아石油66.7%, 共同石油33.3%
富士石油	10,000	3.1	3.5	0.8	아라비아石油19.0%, 東京電力16.0%, 住友化学14.4%, 大協石油13.5%, 日本鉱業13.5%
鹿島石油	20,000	6.3	3.0	-	共同石油38.4%, 三菱油化30%, 大協石油21.6%, 東京電力10.0%
出光興産	1,000	0.3	12.8	14.6	松寿会30.9%, 日章興産29.6%, 山光탱커13.7%, 出光美術館10%, 出光佐三10%
沖繩石油精製	1,830	0.6	1.7	-	出光興産100%
東邦石油	1,500	0.5	0.7	0.5	中部電力33.3%, 出光興産33.3%, 三菱商事33.3%

会社名	資本金		시장점유율 (79年度)(%)		出資比率 (%)
	金額 (百万円)	比率 (%)	精製	販売	
丸善石油 (関西石油)	20,469	6.4	4.8	8.0	三和銀行5.2%, 日本造船5.0%, 日本興業銀行 4.5%, 関西電力4.5%
大協石油	6,737	2.1	3.6	5.3	日本興業銀行9.0%, 朝日商販4.1%, 日本証券 金融3.9%
富士興産	3,960	1.2	1.3	1.1	東京銀行5.7%, 日本債券信用銀行5.0%, 大和 銀行4.7%, 同和火災海上保險4.7%
九州石油	6,000	1.9	2.9	2.0	新日本製鉄25.3%, 昭和電工10%, 新日鉄化学 12.5%, 丸紅10.5%, 三井物産10.5%, 日本石 油2.8%
太陽石油	400	0.1	1.2	1.1	太洋商事44.4%, 青木繁良22.0%
日本精蠟	1,120	0.4	-	6.1	저팬12.0%, 大榮船舶, 그린海事, 저팬·머린 서비스 各8.9%
帝石トウ	25	0.0	0.1	-	帝国石油100%
民族系計	138,748	43.6	-	-	
日本石油	33,500	10.5	0.4	17.7	三井銀行, 第一勸業銀行, 富士銀行 各3.3%
日本石油精製	10,000	3.1	9.8	-	칼텍스(美国)50%, 日本石油50%
興亜石油	6,000	1.9	3.9	0.3	칼텍스(美国)50%, 日本石油5.8%
日本海石油	4,000	1.3	1.0	-	日本石油66%, 北陸電力19%, 富山共同火力9%
셀石油	6,904	2.2	-	7.0	셀·페트롤리엄100%
昭和石油	6,750	2.1	3.2	4.4	앵글로색슨·페트롤리엄25%, 멕시칸·이글· 오일25%
東亜石油	4,961	1.6	1.7	-	昭和石油25%, 伊藤忠商事13.9%, 住友化学 10.2%, 저팬·라인8.7%
昭和四日市石油	4,000	1.3	5.2	-	昭和石油50%, 셀興産25%
西部石油	8,000	2.5	3.2	0.6	宇部興産28.4%, 셀興産20%, 中国電力10.8%, 저팬·라인 5%
엣소·스탠다드石油	20,000	6.3	-	4.9	엣소·이스턴·잉크(美国)100%
제너럴石油	3,916	1.2	-	3.9	엣소·이스턴·잉크(美国)47.5%, 三井物産 5.3%, 三井信託銀行2.6%
(제너럴石油精製)			2.9	-	
南西石油	7,625	2.4	1.3	-	제너럴石油75%, 住友化学12.5%, 住友商事 12.5%
모빌石油	11,000	3.4	-	6.0	모빌·페트롤리엄(美国)100%
極東石油工業	7,000	2.2	2.5	-	모빌·페트롤리엄(美国)50%, 三井그룹50%
東亜燃料工業	20,240	6.3	7.2	-	모빌·페트롤리엄(美国)25%, 엣소·이스턴· 잉크(美国)25%
키그나스石油	2,000	0.6	-	1.2	東亜燃料工業50%, 니찌모오50%
日網石油精製	1,000	0.3	1.7	-	東亜燃料工業70%, 니찌모오30%
三菱石油	15,000	4.7	6.3	7.7	케티오일(美国)50%
東北石油	7,500	2.4	1.7	-	三菱石油56.7%, 三菱商事10%, 東北電力6.1%
外資系計	179,396	56.4	-	-	
合計	318,144	100.0	100.0	100.0	

(注) 1. 関西石油는 79年 10月 1日 丸善石油와 合併
2. 제너럴石油精製는 80年 10月 1日 제너럴石油와 合併